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enzinga: 1월과 2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연속 떨어져
- Bloomberg 오피니언: 미국인 저축은 적지만 기업이 모아둔 돈이 많다
- NYT: “연방 반도체 지원금 받는 대신에 기업들 책임도 있다”

[미국 금융]

- WSJ: 골드만삭스, 소비 부문 사업 축소한다

[부동산]

- Bloomberg: 미 주택 가격 지수 6개월간 2.7% 하락...주택시장 냉각
- Bloomberg: 미 주택의 현금 구매 늘었다...일부 지역에서 현금 비율 커

[중국]

- Reuters: 미 정부, 작년 중국 관련 수출 승인 신청 건 70% 승인
- Bloomberg: 애플 공급업체들 중국 떠난다
- Bloomberg: 시진핑, 중국 내에서 신뢰 우려 도전 겪는다

[글로벌 경제]

- WSJ: 러시아, 달리 아닌 중국의 위안화로 눈 돌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재택근무에 끈질긴 미국인들...유럽과 아시아는 사무실 복귀 추세
- WSJ: Target, 매출 성장 약화와 비용 증가로 수익 압박
- WSJ: ZOOM, 기업 사용자 크게 늘어 수익 급증
- CNBC: BMW, 도요타 연료 전지 사용한 수소차 시험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enzinga: US Consumer Confidence Declined Again in February 1월과 2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연속 떨어져

- 미 소비자 신뢰 지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에 하향 조정된 106.0에서 2월에는 102.9로 떨어졌다. 1985년도를 100 기준으로 한다.
- 현재 비즈니스와 노동시장 여건을 측정하는 현재 여건 지수는 1월에 151.1에서 152.8로 늘었다. 향후 관련 여건을 예상하는 기대 지수는 1월의 하향 조정 76에서 2월에 크게 떨어진 69.7을 기록했다.
- 특히 기대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음 해 이전에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다.

Benzinga 기사

Bloomberg 오피니언: Americans Don't Save Much, But Their Companies Do

미국인 저축은 적지만 기업이 모아둔 돈이 많다

- 요지: 기업이 모아둔 돈은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미국인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 현재 미국인의 저축률은 낮다. 4.7%로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기업들의 다른 상황이다.
- 연준에 따르면 기업들의 미처분 비즈니스 수익은 1970년대 크게 늘어났고, 2000년에 이륙하여(금융위기 때 감소했지만), 현재 1조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기업 저축률은 수십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NYT: Biden's Semiconductor Plan Flexes the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반도체 지원금 받는 대신에 기업들 책임도 있다”

- 연방의회는 지난해에 미국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5백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른바 CHIPS Act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반도체 공급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
- 연방정부는 이들 지원금을 해당 기업들에 제공하는 대신 기업들에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할 예정이다. 연방 상무부는 오늘 화요일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기업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1) 해당 반도체 일터 직원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를 보장하고 2)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3) 해당 직원들의 업무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4) 일정 초과 수익분은 정부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 기사

[미국 금융]

WSJ: Goldman Considers Shrinking Its Consumer Business

골드만삭스, 소비 부문 사업 축소한다

- 골드만삭스가 합병한 Green Sky와 Apple Inc. 및 General Motors Co.와의 신용 카드 파트너십 시행. 이런 사업을 포함하는 소비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골드만삭스가 검토하고 있다.
- 그는 “지난 3년 동안 소비자 비즈니스에 대해 검토해왔다. 성공도 있었지만 분명한 실패도 있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 골드만삭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025년까지 플랫폼 솔루션 관련해 세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플랫폼 솔루션은 소비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GreenSky 및 카드 파트너십이 포함되고, 은행과 기업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잭션 बैं킹이라는 또 다른 비즈니스도 포함된다.

WSJ 기사

[부동산]**Bloomberg: US Housing Cools Further, With Prices Down 2.7% from Peak
미 주택 가격 지수 6개월간 2.7% 하락...주택시장 냉각**

- S&P CoreLogic Case-Shiller가 이번 주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연평균 5.8%로 11월 연평균 7.6%에서 감소했다. 또한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최고치보다 2.7%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모기지율이 두 배 이상 오르며 구매자들이 줄어들었고, 주택 가격도 치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적인 판매가 줄면서 미국 주택의 총가치는 하반기 23억 달러 폭락한 바 있다.
-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전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 S&P는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re US Homebuyers Are Paying in Cash, Sweeping a Majority of Sales in Some Markets**미 주택의 현금 구매 늘었다...일부 지역에서 현금 비율 커**

-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Attom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에서 all-cash deal(현금 전액 거래)의 비중이 지난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더 많은 구매자들이 높은 모기지율을 피해 셀프 펀딩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물러나는 추세이다.
- 한편 지난해 현금 거래 점유율이 50% 이상이었던 13개 도시의 대부분은 미 남동부 지역에 위치했다. 특히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는데, 애초에 북동부나 서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중국]**Reuters: U.S. approved 70% of export license applications from China in 2022**

미 정부, 작년 중국 관련 수출 승인 신청 건 70% 승인

- 연방정부와 다른 정부 기관이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중국 관련 수출 승인 신청 건수의 69.9%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 거꾸로 말해 미 정부가 신청 건수 중에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돌려보낸 건수가 전체의 30.1%라는 것이다. 미 정부는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연방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무역 블랙리스트에 중국의 637업체가 있는데 그중 155개가 추가되었다.

Reuters 기사

Bloomberg: Apple Suppliers Are Racing to Exit China, AirPods Maker Says

애플 공급업체들 중국 떠난다

-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의 공급업체들은 예상보다 빨리 중국으로부터 생산 시설을 외부로 옮기고 있다.
- AirPods 생산업체인 Goertek Inc는 베트남에 2억8천만불을 투자하고 있다. 애플 외에 Jail Inc. 같은 다른 미국 기술 기업들도 인도 등 다른 대체 지역으로 생산지를 옮기거나 검토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Xi Faces More Skepticism Within China as Global Problems Mount

시진핑, 중국 내에서 신뢰 우려 도전 겪는다

- 장기 집권에 도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겪고 있다. 특히 상하이에서.
- 상하이는 전 세계의 중국 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 및 무역 허브다. 이곳에서 수십명을 인터뷰한 결과 시진핑과 그의 새로운 오른팔 Li Qiang가 제시하는 노선에 대해 깊은 불만을 보였다.
- 특히 공산당은 고령화 인구, 사회 안전망 시스템 강화 필요, 지방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한 과도한 토지 판매 의존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 한편, 시진핑을 이번 주말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인민대회 연차 회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애를 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공산당 관리들은 경제 회복 계획과 러시아 대만 미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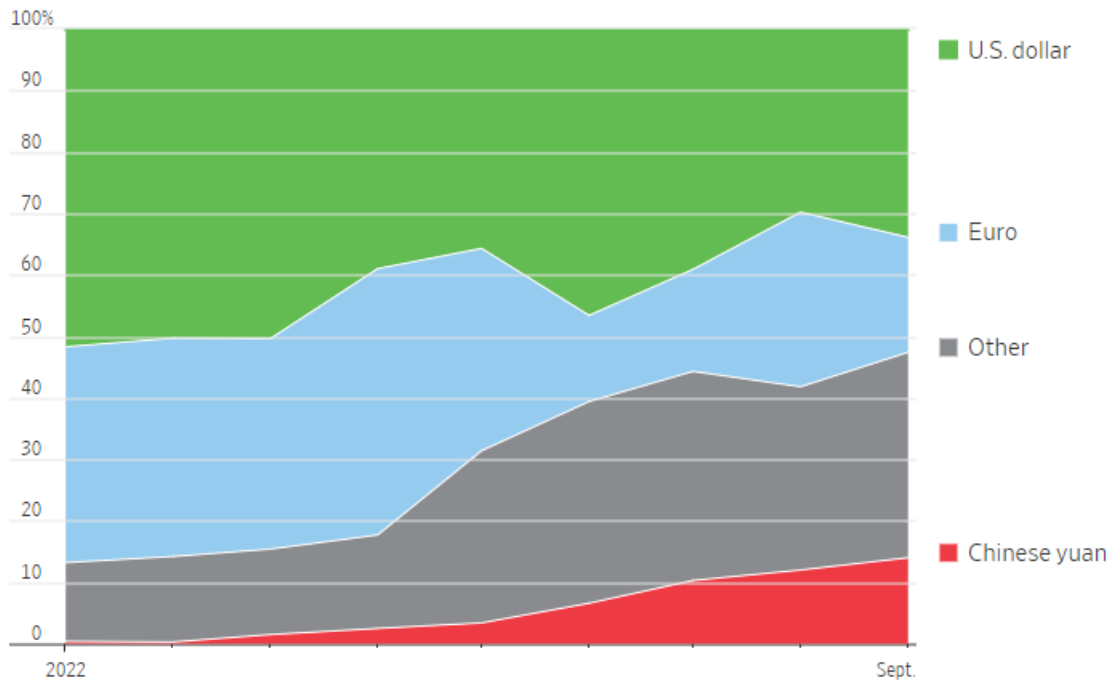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WSJ: Russia Turns to China's Yuan in Effort to Ditch the Dollar

러시아, 달러 아닌 중국의 위안화로 눈 돌려

- 러시아가 서구의 금융 제한 조치와 달러 파워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위안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 러시아 에너지 수출업체들은 점점 더 위안화로 돈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전쟁 자금인 국부 기금은 중국 위안화로 석유 판돈을 모으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도 위안화를 돈을 빌리고 있고, 가계도 위안화를 돈을 저축하고 있다.
- 예전에 러시아는 러시아 경제를 위해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고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고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선임 펠로인 Alexander Gabuev는 전했다.

Share of currency in Russian export settlements



Note: 'Other' category is primarily made up of Russian ruble settlements.
Source: Central Bank of Russia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s Americans Work From Home, Europeans and Asians Head Back to the Office

재택근무에 끈질긴 미국인들...유럽과 아시아는 사무실 복귀 추세

- 부동산 서비스 업체 JLL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유럽, 아시아 등 해외보다 사무실에 복귀하는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무실 점유율은 팬데믹 이전의 40~60% 수준인 데 반해, 유럽과 중동 지역은 70~90%, 아시아는 80~110%에 달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넓은 교외 주택에 사는 미국인들이 더 큰 집, 더 긴 통근 시간을 가진 데다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홍콩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홈 오피스를 꾸리기 쉽고,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유럽, 아시아에 비해 좋지 못하다.
- 이러한 사무실 복귀율의 차이로 인해, 비교적 경제가 회복된 유럽과 아시아의 도시들보다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식당과 상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 특히 타격이 컸던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의 도심지 사무실 가치가 하락하면서 재산세에 의존하던 시 예산도 위협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든 것도 재정 압박을 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격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WSJ 기사

WSJ: Target's Slim Sales Growth, Rising Costs Weigh on Earnings Target, 매출 성장 약화와 비용 증가로 수익 압박

- Target이 이번 주 화요일 4분기 총매출이 3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고 발표했다. 순이익은 43% 감소한 8억 7천 6백만 달러로, 절도 및 제품 손상 증가, 임금 인상,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등으로 영업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판매 성장이 둔화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이다.
- Target은 “인플레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신중한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4분기 더 많은 쇼핑객들이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추세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 한편 Target은 경제 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전망을 보였다.

WSJ 기사

WSJ: Zoom Revenue Up on Growth From Big Customers ZOOM, 기업 사용자 크게 늘어 수익 급증

-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가 이번 주 월요일 4% 증가한 11억 2천만 달러의 4분기 매출을 발표했다. 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 개인 고객 매출은 10% 감소하며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 이는 4분기 대규모 고객, 즉 기업 사용자가 크게 성장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ZOOM의 연간 수익은 44억 4천만~44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 한편 ZOOM은 테크 분야의 침체와 화상회의 플랫폼 필요성의 감소로 인해 지난 12개월간 주가가 약 41% 하락하고, 이달 초 직원의 15%를 해고하는 등 성장 둔화를 겪어왔다.

WSJ 기사

CNBC: BMW launches demonstration fleet of hydrogen cars that use fuel cells from Toyota

BMW, 도요타 연료 전지 사용한 수소차 시험 출시

- BMW가 이번 주 월요일 도요타의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수소 차량 BMW iX5 Hydrogen의 2023년 시험 출시를 발표했다.
- BMW CEO는 “수소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보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 이라면서,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 한편 BMW를 비롯해 도요타, 현대 등의 회사들이 하나의 기술만으로는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 외에도 수소 자동차의 잠재력을 연구해오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구인난·고금리에 노동자 몫 이례적으로 늘어... GDP의 44%"

"임금은 오르고 증시·기업은 부진...상층이 성장 과실 독식하던 흐름 깨져"

미국에서 최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세와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부진 등으로 인해 전체 경제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는 보기 드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44%로 2013년의 42%보다 커졌다.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저금리에 힘입은 증시 호황과 기업 성장의 과실은 상당 부분 기업 고위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반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층의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